

인간-AI 문학 번역, 누가 주도하고 무엇을 따르는가?: 해석 주도권의 형성과 이동을 중심으로

선영화(한국의국어대학교)

1. 서론

최근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선호나 감정에 지나치게 동의하는 아첨 현상(sycophancy)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응답하는 AI보다 자신의 의견을 칭찬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AI를 더 신뢰했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지는 특성을 보였다(구본권, 2026). 이러한 현상은 생성형 AI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적 역할을 넘어, 인간과 소통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은 번역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인간이 AI와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조율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번역의 방향성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이 주로 하나의 번역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인간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면,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지시를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하나의 원문에 대해 여러 표현과 번역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번역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인간 고유의 해석과 창조성이 강조되어 온 문학 번역에서는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 문학 텍스트는 주로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적 텍스트와 달리, 언어의 표현적·미학적 기능이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ewmark, 1988; Reiss, 1971/2000). 따라서 문학 번역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작품 고유의 문학과 미학적 효과를 도착텍스트에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방향성이 중시된다(김순미, 2014; 이형진, 2008).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학 번역은 원문의 미학적 요소와 시적 의미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와 관점을 바탕으로, AI와의 대화 과정에서 번역 판단 및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조율 과정이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문학 번역에서는 최종 번역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작용한 수많은 해석과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번역가는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완전히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 자신의 이해와 기준을 적용해 AI의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과 AI는 함께 의미를 구성하고 조율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 결국 생성형 AI 시대의 문학 번역은 도착텍스트를 단순히 ‘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과 AI가 번역의 방향성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해 나가는 일종의 ‘해석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부 문학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인간-AI 협업 번역 과정을 ‘해석 주도권’(interpretive agency)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해석 주도권은 인간-AI 상호작용 과정에서 특정 주체의 관점과 이해, 전략이 해석 및 번역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 문학 번역 과정에서 학습자와 AI의 해석 주도권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동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 문학 번역 교육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단순히 AI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데 한정하지 않고, AI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며, 필요에 따라 재구성해 나가는 주체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인간-AI 협업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학 번역

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번역학의 실천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성형 AI와 문학 번역 연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문학 번역 연구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생성형 AI가 산출한 문학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검증하고 문학적 특성의 재현을 확인하려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알 루산 등(AI Rousan et al., 2025)은 소설 번역에서 챗GPT가 인간 번역에 가까운 유창성을 보이지만 문화적 함의나 민감성을 고려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였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카라반과 카라반(Karaban & Karaban, 2024)은 시 번역 결과 AI가 시적 형태 보존과 창의성 지표에서는 인간 번역과 유사한 능력을 보였지만, 일관된 출력으로 인해 문체가 경직되고, 문화적 뉘앙스와 원문 고유의 운율을 포착하는 데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챗GPT, 파파고, 인간 번역가의 한영 문학 번역을 비교한 이창수(2024)는 챗GPT가 기계번역보다 오류가 적고 일정 부분 인간 번역과 유사한 창의성을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챗GPT의 문맥 고려 능력과 도착어 전달력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생성형 AI 번역문에 대한 독자 반응을 연구한 논의는 AI 문학 번역의 평가가 언어적 정확성에 한정되지 않고 문학적 특성 및 독자의 수용 경험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배유진과 김순영(2025)은 애거서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추리소설에 대한 챗GPT 번역과 인간 번역의 문체적 차이를 독자 반응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 번역은 가독성 및 명확성 등의 형식적 일관성에서, 인간 번역은 정서적 뉘앙스 및 문화적 감응 등의 정서적 측면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였다. 중국 고전 시에 대한 인간 번역과 GPT-4 번역을 비교한 원 등(Wen et al., 2026)은 이중 언어 독자(중국어/영어)와 단일 언어 독자(영

어)의 평가를 비교해 독자의 언어적 배경에 따라 번역 평가의 기준 및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중 언어 독자는 의미와 시적 구조, 문화적 뉘앙스의 충실성을 준거로 삼아 인간 번역을 선호한 반면, 단일 언어 독자는 언어적 유창성과 명료성, 정서적 공명에 중점을 두어 GPT-4 번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성형 AI를 번역 교육 현장에 도입해 인간과 AI의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아부-라이야시(Abu-Rayyash, 2023)는 문학 번역 교육에서 인간 번역가의 창조성과 문화적 판단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AI의 활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AI의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다양한 번역 예시 도출 등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인간의 전문성과 창조성 함양을 중심에 둔 블렌디드 러닝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학습자의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능에 주목한 압둘할림 등(Abdelhalim et al., 2025)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학 번역 교육을 통해 EFL 학습자의 기계 번역 숙달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번역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생성형 AI 기반 문학 번역 연구는 번역 결과물의 품질과 문체적 특성, 독자 수용, 그리고 교육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범위를 점차 넓혀 가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AI 번역문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원문의 문학적 재현을 비교·평가하고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등 주로 결과물 측면의 산출과 수용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문학 번역은 원문의 의미와 표현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 가운데 특정 방향을 선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번역가의 해석과 판단, 조정의 과정적 측면을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2.2 시 번역의 해석적 특성

문학에서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 작품의 의미가 텍스트의 구조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 이저(Iser, 1980)는 문학 텍스트가 독자에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요소를 제공하면 독자는 이를 연결해 종합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미적 대상을 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p. 113, p. 119). 이때 독자는 능동적인 해

석과 상상을 통해 텍스트에 존재하는 공백을 채워나가면서 작품의 의미를 구체화하게 된다(Iser, 1980, pp. 110-11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학 작품의 의미는 작품 안에 고정되고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의 해석적 특성은 특히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는 제한된 언어적 공간 안에서 의미를 압축적으로 구성하며, 소리와 리듬, 이미지와 비유, 행과 연의 구성 등 다양한 형식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최석화, 2017; Hurley & O'Neill, 2012; Longenbach, 2008; Wolosky, 2001). 이처럼 시의 형식적 요소는 의미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시적 의미 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에 주목하고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과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바스넷(Bassnett, 2002)은 시 번역이 원문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에 기반하며 동시에 그 해석을 번역문 안에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읽기가 하나의 해석이라는 점을 근거로 번역과 해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p. 103). 또한 하나의 원문에서 파생된 복수의 번역본 비교를 통해, 원문에 대한 해석 방식과 번역 및 원문의 기능에 대한 번역가의 판단이 서로 다른 번역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증하였다(p. 106). 유사한 맥락에서 정은귀(2025)는 번역가의 해석에 따라 시 번역의 결과물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한 편의 시를 두고도 서로 다른 번역과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가 지닌 ‘가능성의 힘’이라 역설하였다(p. 207).

이렇듯 시 번역 과정에는 번역가의 해석이 필연적으로 개입한다. 번역가는 원문의 다층적 요소와 표현의 가능성 가운데 무엇에 주목할 것인지,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시 번역에서의 해석은 단순히 원문을 이해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택과 판단, 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의 시 「I dwell in Possibility」에 대해 번역 학습자가 설정한 해석 방향성을 ‘해석 의도’(interpretive intent)로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AI 협업 번역 과

정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조정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해석 의도는 원문에 잠재된 다양한 해석 가능성 가운데 학습자가 특정한 관점 및 방향을 선택하고, 이를 번역 과정에서 구체화하려는 해석적 지향을 뜻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해석 의도를 바탕으로 AI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을 유지하거나 수정, 변형하면서 번역 방향성을 조율해 나가게 된다.

2.3 인간-AI 상호작용과 번역가 행위성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시 번역은 원문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번역가는 자신이 형성한 해석을 토대로 번역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해석적 판단과 선택은 번역 주체가 번역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즉 번역가의 행위성(agency) 논의와 연결된다.

번역 행위성의 관점에서 번역가는 단순히 원문의 대응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번역 과정 전반에서 선택과 결정을 수행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간주되어 왔다. 코스키넨과 킨누넨(Koskinen & Kinnunen, 2010)에 따르면, 번역가의 행위성은 특정한 사회적·맥락적 조건 속에서 유의미한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p. 6)이며, 번역가의 행위를 개인적 의도로 간주하기보다 번역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p. 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번역가의 행위성은 번역가에게 고정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번역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 및 행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성의 맥락적·관계적 성격은 번역가와 기술의 상호작용을 다룬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루오코넨과 코스키넨(Ruokonen & Koskinen, 2017)은 번역가가 기계의 행동(actions)과 행위성을 자신의 행위성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한다고 언급하며, 기계의 행위성이 자신의 행위성과 수렴하거나 어긋나는 양상에 따라 기술에 대한 경험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올로한(Olohan, 2011)은 번역가와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행위성의 춤’(dance of agency)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번역 과정에서 기술이 제공하는 저항에 번역가가 자신의 행동이나 전략을 조정하며 대응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번역가의 행위성이 독립적으로 발현되기보다 기술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술의 특성이나 반응에 대응해 형성되고 조

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양상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그 복잡성이 배가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기존의 번역 도구와 달리 결과물을 단방향으로 제시하지 않고, 번역가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번역 대안과 제안을 산출해 내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AI와 협업하는 환경에서는 번역상의 선택과 판단이 인간 번역가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지기보다 AI가 제시하는 복수의 대안과 응답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매시(Massey, 2025)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인간 번역가의 행위성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성형 AI가 기존 NMT와 달리 인간과의 협력 및 상호성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인간-에이전트 상호작용(human-agent interaction, HAI)의 맥락에서 인간과 AI의 행위성이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교육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상기의 논의는 생성형 AI 환경에서 번역가의 행위성을 단순히 AI의 산출물을 수용하거나 수정하는 능력으로 이해하기보다, AI가 제시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응하면서 번역의 해석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조정하는지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생성형 AI와 협업하는 시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행위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해석과 판단의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인간과 AI의 해석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조정되는 동적 과정에 주목하여, 이를 해석 주도권(interpretive agency) 개념으로 구체화한다. 본고에서 해석 주도권은 인간-AI 상호작용 과정에서 각 주체의 관점 및 이해, 전략이 해석과 번역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해석 주도권의 양상을 학부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이 번역 교육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의 활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는 AI가 도출한 번역문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석과 관점을 바탕으로 AI의 다양한 제안 및 산출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번역의 방향성을 조율해 나가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실습 대상 텍스트

본 연구는 문학 번역의 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국내 통번역학부에 개설된 문학 번역 전공 과목에서 수강생 49명을 대상으로 영한번역 실습을 진행하였다. 실습 대상 원문으로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 466번 「I dwell in Possibility」를 선정하였다.

I dwell in Possibility -
 A fairer House than Prose -
 More numerous of Windows -
 Superior - for Doors -

 Of Chambers as the Cedars -
 Impregnable of eye -
 And for an everlasting Roof
 The Gambrels of the Sky -

 Of Visitors - the fairest -
 For Occupation - This -
 The spreading wide my narrow Hands
 To gather Paradise (Dickinson, 1999, p. 215)

이 작품은 ‘Possibility’를 ‘House’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Prose’와 대비하는 방식으로 시 문학에 내재된 가능성을 표현한다. 특히 ‘Windows’, ‘Doors’, ‘Chambers’, ‘Roof’ 등의 건축적 어휘는 ‘Cedars’와 ‘Sky’ 등의 자연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폐쇄된 공간과 열린 공간, 한계와 확장 사이의 긴장이 교차하는 시적 공간을 구성한다(Blasing, 1987; Juhasz, 1983). 또한 디킨슨 특유의 독창적 대시는 단어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텍스트에 ‘일시적 중지’를 만들어 내고, 시어를 조각난 파편적 신호로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시어의 의미를 해독하도록 유도한다(추지형, 2018; Denman, 1993).

이렇듯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과 독특한 문법적 변주를 통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특징을 지닌다(추지형, 2018, p. 79). 이에 본 연구는 「I dwell in Possibility」가 인간 번역가와 생성형 AI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의미 조율이 발생하기 적합한 텍스트라 판단하였다.

3.2 실습 개요

본 연구의 수업 활동은 학습자가 원문에 대한 해석 의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협업하며 번역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먼저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시를 읽고 작품의 메시지, 정서, 상징, 문체 특징 등을 자유롭게 감상하였다. 이후 조별 토론을 통해 각자의 해석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전체 토론 및 교수자(필자)의 설명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시의 전반적인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설명했지만, 평론가나 연구자, 실무자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관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원문의 특성상 번역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음 단계에서 학생들은 번역 판단의 토대가 되는 해석 의도를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해석 의도는 원문에 잠재된 다양한 해석 가능성 가운데 특정한 관점 및 방향을 선택하고, 이를 번역 과정에서 구체화하려는 해석적 지향으로서, 협업 번역 과정에서 AI의 제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학생들은 앞서 진행한 학습 활동을 토대로 원문의 메시지, 정서, 이미지 및 상징, 문체적 특징을 정리하면서 해석 및 번역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협업 번역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에 활용할 생성형 AI의 종류를 특정 모델로 제한하지 않았다. 번역 결과물의 품질이나 모델 간 성능 차이를 비교하기보다 학습자가 AI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소 익숙하게 활용해 온 생성형 AI 모델을 선택해 협업 번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AI 협업 번역의 첫 단계에서는 기준 프롬프트(baseline prompt)를 입력해 초기 번역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기준 프롬프트는 별도의 해석 방향이나 번역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AI가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번역 양상을 확

인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은 초기 번역문과 자신의 해석 의도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한 후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였다.

AI와의 협업이 완료된 후, 학생들은 대화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번역안을 비교 검토한 후 하나의 번역문을 선택하거나 필요에 따라 여러 결과물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최종 번역문을 구성하였다. 실제 협업 번역 활동은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 형태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총 10일 동안 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번역 결과물과 생성형 AI와의 대화 전문을 제출하였다. 모든 결과물은 연구 윤리 서약을 통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분석에 활용되었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 번역 과정에서 번역 학습자와 생성형 AI 간의 해석 주도권이 어떠한 양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전체 대화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번역 방향성이 조정되거나 새로운 번역 판단이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논의 지점은 학습자가 생성형 AI의 제안을 수용, 수정, 또는 거부하며 번역 방향을 결정하는 상호작용의 주요 장면을 뜻한다. 주요 논의 지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해석하였다.

- 해당 대화에서 학습자와 AI가 논의한 번역 문제는 무엇인가?
- 학습자는 AI의 제안에 어떤 방식(비판, 수용, 수정, 거부 등)으로 반응했는가?
- 이러한 판단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졌는가?
(예: 원문, 학습자의 해석 의도, AI가 제시한 관점 및 대안 등)
- 판단 이후 학습자의 후속 행동은 어떠했는가?
(예: 자신이 고안한 대안 제시, AI에게 추가 아이디어 요청 등)
- 번역 문제와 관련된 전체 대화에서 판단 기준 및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예: 기준의 유지, 새로운 기준의 형성, 본래 기준으로의 회귀 등)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질문을 중심으로 사례별 주요 논의 지점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사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검토하면서 해석 주도권의 형성 및 조정 양상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례별로 학습자와 생성형 AI의 상호작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함으로써 해석 주도권의 형성과 변화, 재구성 양상을 고찰하였다.

4. 분석 결과

4.1 해석 주도권의 양상

전체 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해석 및 번역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석 주도권의 주체와 행사 방식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 가지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전체 대화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징과 해석 주도권의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하여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판적 통제’, ‘탐색적 조정’, ‘동조적 수용’으로 개념화하였다. 세 가지 양상의 특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통제는 번역가가 자신이 설정한 해석 의도와 원문에 대한 이해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생성형 AI의 제안과 출력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평가·수정·거부함으로써 AI의 영향과 번역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상호작용 양상이다. 이 유형에서 해석 및 번역 방향성의 기준은 인간이 설정하며, AI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번역가는 자신의 이해와 해석 의도를 AI에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용·수정·거부의 의사결정을 내리며, 때로는 AI를 활용해 해석 의도에 착안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비판적 통제에서 학습자는 해석의 주도권과 통제력을 유지한 채로 AI의 제안과 자신의 번역 방향성을 조율하며 번역문을 구성해 나가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탐색적 조정은 번역가가 자신이 세운 판단 기준을 절대적 근거로 삼아 해결책을 찾기보다 생성형 AI와 함께 다양한 번역 대안을 탐색하고 축적하면서 번역 방향성을 조정해 나가는 상호작용 유형이다. 탐색적 조정

서는 해석 주도권이 번역가와 AI 중 어느 한 쪽에 지배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상호작용의 국면에 따라 양자 간에 분산되거나 교차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유형에서 생성형 AI는 원문 해석, 아이디어 도출, 표현 개선 등을 지원하는 협업 자원으로 기능하며, 번역가가 다양한 대안을 비교·선택·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셋째, 동조적 수용은 번역가가 생성형 AI의 아이디어나 해석 프레임, 제안을 새로운 기준으로 채택하여 후속 번역 판단의 준거로 삼는 양상을 뜻한다. 이 유형에서는 AI 출력물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여전히 인간 번역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해석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나 해석 프레임에 의해 세부 번역 방향이 결정되고, 이후의 미시적 선택과 조정 역시 그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석 주도권이 재배치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¹⁾

상기에서 살펴본 세 가지 상호작용 양상은 학습자의 고정된 능력이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번역 과정에서 학습자와 생성형 AI 사이의 해석 주도권이 어떻게 배분되고 변화되는지를 기술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이다. 실습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석 주도권은 번역가의 판단 과정과 AI와의 상호작용 방식, 번역 문제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4.2 해석 주도권의 형성 및 변화

본 절에서는 학습자와 생성형 AI의 4가지 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 번역가가 AI의 제안을 수용·수정·거부하는 주요 국면에서 해석 주도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2.1 사례 1: 학습자의 해석 확신도 및 AI 역할 인식

본 사례는 학습자가 자신의 해석 의도와 번역 기준에 대한 확신이 강하

1) 본 연구는 해석 주도권의 행사 주체를 번역가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이를 인간에게 고정적으로 귀속되는 특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컨대 동조적 수용에서는 생성형 AI의 해석이나 아이디어가 후속 번역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해석 주도권이 AI 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 생성형 AI를 자신의 번역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우, 해석 주도권이 번역자에게 지배적으로 귀속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이 사례에서 생성형 AI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번역 방향성을 함께 구성해 나가는 협업 대상이 아니라, 학습자가 구축한 해석 틀 안에서 이에 부합하는 표현적 대안을 찾아내고 수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조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아래 제시된 주요 논의 지점을 중심으로 해석 주도권의 양상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학생-AI 상호작용 사례 1 (필자의 말은 [*]안에 표시)

학습자-생성형 AI 대화	
①	[학생] [*페르소나 지정(베테랑 시 번역가), 번역 목표, 번역 전략, 해석 기준, 번역의 결, 작업 지시, 품질 검증 기준 등 제시] → [*AI 결과물 생성] ²⁾
②	[학생] 원문에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대시가 들어가면서 비정형과 해석의 다양성, 그리고 휴지 공간을 주면서 환기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했는데, 네가 번역한 최종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점이 약화된 것 같다고 생각해. 첫 번째 연에서 그게 특히 약해졌어.
③	[AI] 나는—가능성 속에—산다—/ 산문보다—더 고운—집에—/ 창은—헤아릴 수 없이 많고—/ 문은—더 멀리—열린다—// 방들은—삼나무 숲처럼—깊고—
④	[학생] 1. 원문에서 대시 리듬이 있는 곳에만 복원을 해야지. 지금은 모든 행에 대시를 넣어버렸잖아. 이건 수정해. 원문의 구조를 따라가라고. 2. ‘산문보다 더 아름다운 집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 3. 방들이 삼나무처럼 깊은 게 아니야. 삼나무처럼 우뚝 곧게 서 있는 모습 이 참 견고하고 승고한 뉘앙스가 담겨야 해.
⑤	[AI] 나는 가능성 속에 산다—/ 산문보다 더 아름다운 집에—/ 창은 더 많고—/ 문은 더 홀륭하다—// 방들은 삼나무처럼 곧고—[...]
⑥	[학생] 내가 제공한 프롬프트에 맞추어서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물을 내라고. 지금 너는 내 프롬프트를 전혀 무시한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어. 계속 반복되면 구두 끊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요구사항에 정확히 결과물을 출력해. [*AI 수정 결과물 생성]
⑦	[학생] [*앞서 생성된 AI 결과물과 관계없이] 내가 일일이 수정한 버전이야. 위 버전에 대해서 내가 맨 처음에 제시한 프롬프트 맥락에 맞추어 평가를 내린 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제시해. [품질 검증 기준] ■의미의 정확성: 원문의 함축과 상징을 왜곡하지 않음 ■형식의 충실성: 대시·행 분리·여백 등 형식적 구조 유지 ■정서의 일관성: 해방감과 경외감이 자연스

	럽게 공존 ■ 언어의 절제: 군더더기 없는 명료한 문장
⑧	[AI] 나는 가능성 속에 산다—/ 산문보다 더 아름다운 집에—/ 창은 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문은—더 활짝 열린다—// 방들은 삼나무처럼 곧게 서 있고—
⑨	[학생] 근데 삼나무처럼 곧게 서 있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 삼나무의 비유 표현을 뜻풀이로 나타내려니까 이상한 것 같아. 어떤 표현으로 대체하면 좋을까? 에밀리 디킨슨의 문체를 고려한다면?
⑩	[AI] “삼나무의 방들”이 디킨슨식 압축, 숭고함, 형식적 호흡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
⑪	[학생] 근데 Cedars가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걸 반영해본다면? 지금 ‘삼나무의 방들’이라는 번역은 너무 직역투고 이미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아.
⑫	[AI] “하늘 향한 방들—”은 ‘백향목의 숭고함(수직성·신성함)’을 해석적으로 번역하면서도, 디킨슨 문체처럼 절제되고 상징적인 울림을 유지합니다. 원문의 영적 확장감과 시의 개방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선택이에요.
⑬	[학생] 아니 백향목(삼나무)에 대한 비유가 사라지면 안 돼. 그리고 마크다운으로 호들갑 떠는 형식으로 답변하지 마. 정확히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출력해. 최종 제안 버전에서 2연 1행 중 ‘백향목’의 곧고 숭고하고 견고한 이미지를 살려서 Cedars의 비유를 버리지 않고 다시 번역해.
⑭	[AI] 백향목의 방들—
⑮	[학생] 아니 백향목의 방들이라는 번역은 너무 이미지를 살리지 않았잖아. 숭고함과 견고함이 느껴지게 창의력을 발휘해봐.
⑯	[AI] 백향목처럼 우뚝 선 방들—

상기 사례는 해석 주도권이 생성형 AI보다 인간 번역가에게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대화 초반 학생은 번역 목표, 해석 기준, 번역 전략, 품질 검증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며(①) 번역의 방향과 평가 기준을 스스로 설정했다. 이후에도 ‘원문 구조를 따라가라’, ‘원문의 대시 기능을 재현하라’, ‘삼나무의 숭고함과 견고함을 드러내라’와 같은 요구(②, ④, ⑪, ⑬)를 통해 AI의 해석과 결과물을 자신의 해석 의도 및 번역 원칙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했다. 이는 번역 판단의 준거가 생성형 AI가 아닌

- 2) 각 사례의 표에서는 기준 프롬프트에 따른 초기 번역문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가 자신의 해석 의도를 바탕으로 직접 프롬프트를 구성해 입력한 시점부터의 대화문을 제시하였다.

학생 자신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비판적 통제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생은 원문에 등장하는 ‘Cedars’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표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AI에게 대안을 요청하고(⑨, ⑪), 제시된 번역안(⑩, ⑫, ⑭, ⑯)을 비교·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는 다양한 번역 가능성과 대안을 제공하는 도구적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탐색적 조정의 상호작용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례의 탐색적 조정이 인간 번역가와 생성형 AI가 번역 방향을 함께 구성해 나가는 상호작용적 성격보다는, 번역가가 설정한 번역 기준을 최우선 준거로 삼아 AI의 제안을 선택·수정하는 ‘통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AI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비판적 피드백이 담긴 ④, ⑪, ⑬, ⑮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은 원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번역 의도를 일관된 판단 준거로 유지한 채 AI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는 번역 기준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협업 주체라기보다 학습자가 이미 설정한 번역 방향을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아내는’ 보조적 자원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대화 과정에서 탐색적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원문 이해 및 해석 의도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이 강할 경우 해석 주도권이 AI로 분산되거나 이동하지 않고 인간 번역가에게 지배적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화 구조는 상호작용 전반에서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학생이 “일일이 직접 수정한” 번역문을 제시한 뒤 AI에게 보완 의견만을 요청한 장면(⑦)과 답변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며 AI의 역할을 엄격하게 제한한 장면(⑬)은 해석 주도권의 재편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AI는 번역문 생산의 공동 참여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출력하고 반응하는 보조적 역할로 재배치된 것이다. 더욱이 해당 학생은 번역 코멘트에서 “AI는 어디까지나 언어를 조합하는 도구”라고 응답했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가 AI를 ‘협업 파트너’가 아닌 ‘도구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사례에서는 어휘 및 표현 선택을 둘러싼 탐색적 조정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번역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

석 주도권이 양자 간에 분산되지 않았고, 대화 전반에 걸쳐 학습자의 해석 의도가 중심이 된 비판적 통제가 지배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해석 의도에 대한 학습자의 강한 확신과 AI를 보조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이 해석 주도권을 인간 번역가에게 지속적으로 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지배적 협업 구조를 반드시 이상적인 AI 활용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습자의 해석적 확신은 번역 판단의 주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생성형 A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나 발상, 아이디어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2 사례 2: 원문 정합성 및 해석 의도에 대한 의식

본 사례는 학습자의 해석 주도권이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번역 가능성의 탐색과 원문 정합성에 대한 검토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의 학습자는 AI가 제안하는 실험적 프레임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수용하며 번역의 범위를 확장했지만, 결과물이 원문의 의미와 심상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번역의 방향성을 재조정하였다. 생성형 AI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었지만, 활용의 방향과 최종 선택은 학습자가 설정한 해석 기준에 의해 관리된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대화를 통해, AI에 일시적으로 배분된 해석 주도권이 인간 번역가에게 회귀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표 2

학생-AI 상호작용 사례 2-1 (필자의 말은 [*] 안에 표시)

학습자-생성형 AI 대화	
①	[학생] 위 내용은 내가 이 시를 번역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구상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것이야. 위 내용을 빠짐없이 세세히 고려하여 번역해줘. [*학생은 상기 지시를 통해 도출된 AI 번역이 원문의 의미와 심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후 아래 ②번 프롬프트 제시]
②	[학생] 너는 이제부터 저명한 한국 시인이야. 간결한 문체와 비유를 통해 효

	과적으로 심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시인이야.
③	[AI] 알겠다. 이번에는 시 번역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어 시’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을 택할게. 나는 가능성에 집을 짓는다 / 말보다 먼저 숨이 서리는 자리—/ 창은 바람보다 많고 / 문은 스스로 열린다 [...] 원한다면 “김춘수풍”, “박준풍”, “나태주풍”, “기형도풍” 등 특정 시인 스타일 모방 버전도 가능하다.
④	[학생] 간결한 어조와 비유로 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인에는 누가 있지?
⑤	[AI] [*박준, 김춘수, 최승호, 나태주 시인 등을 제시하고 문체적 특징을 자세히 설명]
⑥	[학생] 박준 풍과 나태주 풍을 섞어서 번역해주되 내가 보낸 질문들과 답변을 고려해서 번역해줘.
⑦	[AI] 나는 가능성이라는 땅에 작은 집을 올려 본다 / 말보다 먼저 먼지가 일고 창들은 바람이 셀 수 없을 만큼 열려 있으며 / 문은 누가 두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열린다 [...]
⑧	[학생] 너무 과하다. 내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줬던 번역본에서 다시 시작하자. [...] 너무 과하게 원문을 바꾸진 말고 적당히 깊이 있으면서 한국 시 같은 느낌이 나게 바꿔.
⑨	[AI] “과하게 창작하지 않고, 그러나 문장이 살아있게” 그 균형을 목표로 한다.

상기의 대화 내용은 해석 주도권이 단일 유형으로 유지되지 않고 번역 과정의 국면에 따라 반복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음을 예증해 준다. 대화 초반 학생은 자신이 작성한 해석 의도와 번역 기준을 생성형 AI에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번역을 요청했다(①). 이렇게 도출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자 AI에게 “저명한 한국 시인”이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했고(②), AI는 “시 번역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어 시’로 재탄생시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김춘수풍’, ‘박준풍’, ‘나태주풍’, ‘기형도풍’ 등 특정 시인의 문체를 모방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했다(③). 학생은 AI가 제시한 프레임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시인의 문체적 특성을 탐색했고(④, ⑤), 결과적으로 AI가 내놓은 제한된 ‘선택지’ 가운데 ‘박준풍’과 ‘나태주풍’을 혼합해 번역하는 실험(⑥)을 수행했다. 이러한 시도는 생성형 AI가 선별하고 제안한 문체 특성을 채택해 번역 방향성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동조적 수용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조적 수용의 양상은 지속되지 않았다. AI 결과물(⑦)의 형식과 내용이 원문에 담긴 의미나 심상에서 지나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자, 학습자가 즉각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본래 해석 의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⑧). 이러한 현상은 원문과의 정합성 및 해석 의도에 대한 학습자의 지속적 의식과 비판적 사고가 생성형 AI 출력물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를 제어하는 기제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3

학생-AI 상호작용 사례 2-2 (필자의 말은 [*]안에 표시)

학습자-생성형 AI 대화	
⑩	[학생] 시를 잔잔한 자연 속에 고요히 서 있는 집 한 채의 이미지로 번역해줘.
⑪	[AI] 나는 가능성이라는 들판에 산다 / 말보다 먼저 바람이 스며드는 자리 / 집 한 채 / 산문보다 한층 고운 빛으로 서 있고 [...]
⑫	[학생] 이 방법은 별로인 것 같아. 한국 유명 시인의 시풍을 모방하면서 원문을 너무 변형시키지 않는 전략이 가장 심상을 잘 살리고 시가 가진 느낌을 잘 나타내는 것 같으니 그 방법으로 다시 번역 제시해줘.
⑬	[AI] 나는 가능성에 산다 / 산문보다 더 맑은 한 채의 집—/ 창은 셀 수 없을 만큼 나 있고 / 문은 그보다 더 깊이 열려 있다— [...]
⑭	[학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가 제시해준 번역본을 모두 모아서 보여줘. 합치거나 섞지 말고 개별 번역본 모두 따로따로 다 보여줘. [*AI가 대화 과정에서 나온 번역문 모두 제시]
⑮	[학생] 내가 스스로 쉬으려고 하는데 “And for an everlasting Roof / The Gambrels of the Sky” 부분의 해석이 와닿지 않네. 시를 집에 비유한 이 시에서 지붕이 ‘everlasting’하다고 표현하고 ‘sk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시의 무한한 가능성과 거기서 느껴지는 차오르는 경외감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 그런 것이 잘 나타나게 번역해줘.
⑯	[AI] [*번역 후보 제시] 그 지붕은 하늘을 영원히 엮고 있다. [...]
⑰	[학생] 지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빼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 좋겠어.
⑱	[AI] [*번역 후보 제시] 머리 위로는 하늘이 오래 걸려 있다. [...]
⑲	[학생] ‘머리 위로는 하늘이 오래 걸려있다’라는 표현 좋은데 뭔가 집이라는 느낌이 안 나잖아. 그 표현을 베이스로 집 안에서 천장을 봤을 때 있는 것

	은 하늘이라는 느낌이 나게 수정해줘. [...] “Of Visitors - the fairest” 부분 번역들이 심상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국 현대시 느낌이 나게 추상적이면서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해줘.
㉔	[AI] 안쪽에서 올려다보아도, 머리 위에는 하늘이 느슨하게 걸려 있다. // 이 집을 통과할 얼굴들은, 맑은 이들뿐이다. [...]
㉕	[학생] 나는 가능성 속에 산다. / 말보다 먼저 숨이 서리는 자리— 창은 바람보다 맑고 / 문은 스스로 열린다 // 집 안의 방들은 / 옛 삼나무처럼 곧고 깊어 [...] // 들어오는 이들은, 끝내 맑은 사람들이다. [...] 내가 제시한 번역안을 합쳐서 내가 작성한 최종 번역본이야. 간결하고 직관적이게 손볼 부분이 있으면 고치되 기본 틀이나 표현은 많이 건들지 마.

후속 대화에서 학생은 이미지 기반 번역(㉔), 시적 상징 재현(㉕, ㉖) 등 다양한 번역 대안을 반복적으로 탐색하였다. 먼저 “시를 잔잔한 자연 속에 고요히 서 있는 집 한 채의 이미지”로 번역하라고 요청하면서, 원문에서 자신이 느낀 심상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어의 시적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에 AI는 “가능성이라는 들판”, “말보다 먼저 바람이 스며드는 자리”, “집 한 채” 등의 표현을 제안하였고(㉖), 학생은 해당 표현이 지닌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원문의 의미와 정서적 효과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자, “한국 유명 시인의 시풍을 모방하면서도 원문을 너무 변형시키지 않는 전략”으로 번역 방향성을 확정하였다(㉗). 이는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확인하고 축적하는 탐색적 조정을 이어가면서도, 최종 판단 기준은 원문 정합성 및 해석 의도에 두는 비판적 통제의 양상을 예증한다.

뒤이은 대화에서는 시적 상징을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어휘 및 표현 차원의 탐색이 이어졌다. “And for an everlasting Roof”, “The Gambrels of the Sky”의 번역과 관련해, 학습자는 ““everlasting”과 ‘sky’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과 경외감”이라는 자신의 해석 의도를 먼저 제시하고(㉘), 이에 적합한 대안을 AI와 함께 모색하였다. AI가 “그 지붕은 하늘을 영원히 엮고 있다”, “머리 위로는 하늘이 오래 걸려 있다” 등의 번역을 제안하자(㉙, ㉚), 학습자는 ‘지붕’과 ‘하늘’의 표현 효과를 검토하며 원문의 은유 구조가 유지되도록 방향을 조정하였다(㉛, ㉜). 이는 AI의 제안을 원문의 시적 이미지와 의미 구조에 따라 검토하는 비판적 통제가 이루어진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번역문을 모두 검토한 후 자신의 번역 목적에 부합하는 표현을 취사선택하고 재구성해 최종 번역문을 완성했다(㉒). 대화 전반에서 생성형 AI는 탐색적 조정에 활용되었지만, 어떤 표현을 채택하고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 기준은 학습자가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탐색적 조정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해석 기준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원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 의도를 기준으로 AI의 대안을 검증하고 선별하는 비판적 통제가 유지되었음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의 학생은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폭넓게 참조하고 활용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선택·재구성함으로써 최종적인 해석 주도권을 유지하였다.

4.2.3 사례3: 해석 의도와 AI 프레임의 동일시

사례 3은 학습자가 대화 서두에서 자신의 해석 의도를 제시하지만 생성형 AI가 이를 확장하여 재구성한 해석 프레임을 점차 자신의 의도와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사례에서 AI는 학습자의 해석 의도를 전적으로 변형하기보다, 학습자가 해석 의도의 키워드로 제시한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확장·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이로 인해 학습자가 AI의 해석을 자신의 의도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뒤이은 상호작용은 원문과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검토하기보다 AI 프레임을 유지한 채 미시적 표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래의 대화문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여준다.

표 4

학생-AI 상호작용 사례 3 (필자의 말은 [*] 안에 표시)

학생-생성형 AI 대화	
①	[학생] 당신은 감성 표현에 능한 시인입니다. 이 시를 시인이 가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 대해 탐구하는 시로 다시 써주세요.
②	[AI] 나는 가능성 속에 산다—/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방, / 끝없이 열리는 창들이 있는 집. / 산문이 닫는 문 뒤에서 / 나는 또 하나의 문을 만든다. [...] // 좁은 두 손을 펼쳐 / 가능성의 낙원을 그러모으는 것.
③	[학생] 대시는 영미권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대체해주세요. 또한 “고요가 내 마음을 감싼다.” → “Stillness wraps around my heart.”, “그리움이 내 안에 피어난다.” → “Longing blooms inside me.”와 같은 예시처럼 짧고 서정적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번역해주세요.
④	[AI] 나는 가능성 속에 산다. / 끝이 없는 집, / 창들은 빛을 품고 / 문은 새 길을 연다. // [...] 나는 두 손을 펼친다. / 가능성이 내 안에 피어난다.
⑤	[학생] The spreading wide my narrow Hands To gather Paradise— 마지막 두 줄은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⑥	[AI] 내 방들은 삼나무처럼 솟아오르고 / 누구의 눈도 닿지 못한다. / 하늘의 곡선이 내 지붕이 되어 / 나를 덮고, 나를 드러낸다. [...] 나는 두 손을 펼친다. / 그리고 그 끝에서, / 낙원이 천천히 내게 모여든다.
⑦	[학생] Cedars (삼나무, 향나무)를 보면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Gambrels of the Sky’에서 하늘은 무한한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 이 단어들을 단순 직역하지 말고 시인의 견고함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풀어 번역해 주세요.
⑧	[AI] 내 안의 방들은 /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숲처럼 서 있다. / 하늘은 나의 지붕이 되어 / 끝없이 나를 품고, 더 멀리 이끈다. // 나는 두 손을 천천히 펼친다. / 그리고 그 사이로, / 아직 오지 않은 낙원이 피어난다.

대화 서두에서 학생은 생성형 AI의 페르소나를 “감성 표현에 능한 시인”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해석 의도를 ‘시인이 가진 무궁무진함을 탐구하는 시’로 요약 제시하며 원문을 번역하라고 요청한다(①). 이에 AI는 ‘무궁무진함’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구체화하여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방, / 끝없이 열리는 창들이 있는 집. / 산문이 닫는 문 뒤에서 / 나는 또 하나의 문을 만든다.”처럼 원문 이탈성이 강한 번역문을 도출했다(②).³⁾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점은 AI 번역문이 원문의 내용 및 이미지와 상당한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번역문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원문과의 정합성을 고민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학생은 AI가 제시한 ‘해석적 번역’을 유지한 채 대시를 다른 양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을 짧고 간결하게 구성하고 마지막 두 줄의 미감을 더하는 등 미시적 요소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③~⑥).

3)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dwell in Possibility— / A fairer House than Prose— / More numerous of Windows— / Superior—for Doors—”

그러나 이러한 동조적 수용의 양상을 단순히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원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화 첫머리에 제시된 학습자의 해석 의도를 살펴보면, 해당 학생이 원문과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학생은 처음부터 원문을 “시인이 가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탐구하는 시”로 규정하고 이를 자신의 핵심적인 해석 의도로 명시하였다. 디킨슨의 시가 지닌 함축성과 개방성,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상적 해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AI 역시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원문의 이미지와 내용을 상당 부분 재구성했다. 그럼에도 AI 결과물은 학습자가 설정한 해석 방향과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러한 원문 이탈성을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자신의 해석 의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례에서 AI는 번역문만을 출력할 뿐, 번역 과정이나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출력 방식은 학습자가 번역 논리보다 번역 결과물의 수정과 보완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번역 과정 및 논리 중심의 비판적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다.

생성형 AI 결과물의 단계별 변화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이 사례에서 AI 번역문은 학습자의 의도대로 정밀하게 통제되지 않으며, 부분적 지시에도 출력물 전체가 변화하는 가변적 특성을 보인다. 최초 결과물(②)을 받아본 후 학생은 대시의 변환과 간결한 시행 구성 등의 ‘형식적 변환’을 지시하지만(③), AI가 재생성한 결과물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크게 변모하였다. 기존에 생성한 번역문(“끝없이 열리는 창들이 있는 집. / 산문이 닫는 문 뒤에서 / 나는 또 하나의 문을 만든다.”)이 ③의 요청 이후 “끝이 없는 집, / 창들은 빛을 품고 / 문은 새 길을 연다.”로 내용까지 상당 부분 변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번역의 마지막 행인 “가능성의 낙원을 그려모으는 것”(②)은 학생이 퓨샷 프롬프트(few-shot prompt)의 참고 사례(③)로 제시한 “그리움이 내 안에 피어난다.”를 그대로 모사한 “가능성이 내 안에 피어난다.”로 탈바꿈했다. “Cedars”나 “Gambrels of the Sky”처럼 특정 표현의 조정만을 요구한 경우(⑦)에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다른 표현까지 함께 변모하는 양

상을 보이며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세밀하게 조정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변동성이 높은 생성형 AI 결과물은 학습자의 추가적인 검토나 수정 없이 최종 번역문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해석 의도가 결과물을 평가하는 주요 준거로 작용하면서, 세부 표현과 이미지 등의 원문 정합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2.4 사례 4: AI의 실험적 해석 프레임에 대한 물입

본 사례는 학습자와 생성형 AI 간 해석 주도권이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대화의 전개에 따라 역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화 초반부에서 학생은 원문의 형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 의도를 설정하고, 이를 번역에 반영하기 위해 AI와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진행되면서 AI가 특정 한국 시인의 문체를 참조 프레임으로 제안하자, 학생은 이를 수용해 자신의 번역 전략을 점차 정교화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판단의 중심은 대화 초반 설정한 ‘원문 형식의 재현’에서 생성형 AI가 제안한 ‘문체적 가능성의 실험’으로 확장되었고, 이후에는 해당 문체를 구현하기 위한 어휘 및 표현 선택의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표 5

학생-AI 상호작용 사례 4-1 (필자의 말은 [*] 안에 표시)

학습자-생성형 AI 대화	
①	[학생] 너는 나의 유능하며, 변뜩이고, 창의적인 번역 어시스턴트야. 내 번역 목표는 다음과 같아. [*해석 의도 제시: 메시지, 분위기, 이미지, 문체 특징 등] 더욱 완성도 있는 번역을 위해 어떤 프롬프트를 네게 전달해 주면 좋을까? 내게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물어봐줘.
②	[AI] 프롬프트를 완성형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를 조금 더 알고 싶어. • 시의 자유로움을 표현할 때 “은유적으로 몽환적” 분위기를 원해? 아니면 “담백하지만 문법이 어긋난” 식의 자유로움을 원해? • 번역 톤은 “ 시적이고 낮은 표현 ”(예: 박인환·김춘수 같은 시어)이 좋아? 아니면 “ 단정하지만 사유적인 산문시 ” 같은 느낌(예: 기형도·정현종 등)? • 형식적 재현은, 원문처럼 짧은 행(line) 단위로 줄바꿈을 유지하길 원해?

	아니면 자연스러운 문장형 시로 재구성해도 괜찮아?
③	[학생] • 담백하지만 문법이 어긋난 듯 [...]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해. •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의 당혹감을 표현한다면, 한국 시인 이상의 시와 같은 느낌이 좋지 않을까? • 똑같이 대응되는 파트에 대시를 삽입해 원문과 비슷하면 좋을 듯해.
④	[AI] 완벽해. 지금 내가 제시한 방향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적 불안정성’을 한국어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데 가장 적절한 해석이야. [*대시 효과 대체, 문법적 비틀기 등의 전략 제안]
⑤	[학생] 위 시[*원문]를 한국의 이상 작가와 비교했을 때, 시 번역에 있어 참 조할 만한 이상 작가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을까? [*AI가 디킨슨과 이상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을 보고] 영어 독자가 디킨슨 시를 읽고 느낀 감정을 한국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더 나은 창의적 번역
⑥	[AI] 디킨슨의 간결함과 이상의 낯섦을 교차시키려는 시도야. 이전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두 언어의 시적 감각이 만나는 실험’에 가깝다. • 가능성 속에—나는 머문다—/ 산문보다 더—곱디고운 집—// 그 집의 방들 은—소나무처럼—/ 눈으로 뚫을 수 없는—깊음— [...]
⑦	[학생] • 내가 알기로 dwell in은 상당히 옛되거나 적어도 live보다는 formal한 단어야. 이상의 시를 보면 ‘아이들아’라고 하지 않고 ‘아해들아’와 같은 익숙지 않은 오래된 단어가 사용되잖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어떨까? • “소나무처럼—눈으로 뚫을 수 없는—깊음—”에서 “눈으로 뚫을 수 없는”을 다른 사자성어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해.
⑧	[AI] • ‘dwell’은 ‘사색적 정주’의 뉘앙스가 있어 ‘live’보다 정적인 단어지. [*추천 대체어로 ‘거한다 / 기거하노라 / 서리노라’ 제안] (예) “가능(可能)에—거하노라”, “나는 가능의 집에—기거하노라” • 소나무를 “측백”, “노송” 대신 “숲” 또는 “수풀” 계열로 재현 [...] / 사자성어로는 “난시불가(難視不可)”, “무형지경(無形之境)”등도 가능하지만, 너무 한자투면 이상적 낯섦보다는 학문적이 돼.
⑨	[학생] 네가 말해준 숲도 살릴 수 있는 ‘송림’이라는 표현과, 사자성어 송고 불매를 사용하면 어때? “Impregnable”은 일상적이기보다는 상당히 학문적이잖아.
⑩	[AI] “Impregnable”은 매우 형식적이며, 거의 논문적 어휘야.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로 옮길 때 ‘뚫을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중 하나를 쓰면, 그 어휘의 고어적·형식적 냉기를 살릴 수 있어.
⑪	[AI] [*학생이 AI 제안 중 일부 수용하여 2차 번역본 요청] 가능(可能)에—서리노라—/ 산문보다—더 고운 집— [...] // 그 방들은—송림처럼—/ 난공불락(難攻不落)의 눈— [...]

대화 초반에 학생은 AI에게 “창의적인 번역 어시스턴트”로서의 페르소나를 부여하면서 자신이 설정한 해석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했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역으로 질문하라고 요청했다(①). 그러자 AI는 시의 번역 톤, 분위기, 형식 등과 관련하여 ‘선택지’를 제시한 후(②), 이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번역에 적용 가능한 전략 및 방법을 제안했다(③~④). 이 대화에서 눈여겨볼 점은 AI가 학생에게 던진 질문(②) 가운데 ‘여러 한국 시인의 문체 참조’라는 해석 프레임이 이후 번역 과정에서 학생의 사고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학생이 “한국 시인 이상의 시와 같은 느낌이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③)하면서 대화는 동조적 수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⑤에서 학생은 AI를 활용해 시인 이상의 문체 특징을 탐색한 후 원문 독자의 감정을 번역문 독자에게 유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요청한다. 그러자 AI는 이러한 시도를 ‘디킨슨의 간결함과 이상의 낯센을 교차시키는 시적 실험’이라는 해석 프레임으로 규정하고(⑥), 이 시점부터 번역 논의는 디킨슨의 원문과 한국 고전/현대 시를 결합하는 해석 프레임 안에서 전개되기 시작한다. 먼저 AI는 ‘이상의 낯센’을 집목한 1차 번역 결과물로 “가능성 속에—나는 머문다—/ 산문보다 더—곱디고운 집—// 그 집의 방들은—소나무처럼—/ 눈으로 뚫을 수 없는—깊음—”을 제시한다(⑥).⁴⁾ 이 번역의 특징적인 점은 원문에 없던 위치에 대시가 빈번하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당초 대시의 빈도와 위치를 원문 형식에 맞춰 재현하고자 했지만(③), 생성형 AI가 제안한 대시 구조는 이후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최종 번역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⁵⁾

이어지는 ⑦~⑪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동조적 수용의 양상을 강하게 엿볼 수 있다. 학생은 ‘dwell’, ‘cedars’, ‘impregnable’ 등을 번역하면서 ‘디킨슨과 이상의 문체 결합 실험’이라는 AI의 해석 프레임을 전제로 고어체, 시적

4)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dwell in Possibility— / A fairer House than Prose— [...] // Of Chambers as the Cedars— / Impregnable of eye—”

5) 대시 추가로 인한 단절적 리듬의 문제는 생성형 AI의 자기 피드백(표 6의 ⑬)에도 반영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이 모색되지 않은 채 최종 결과물에 반영되었다. 이 문제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낮췄, 사자성어 등의 세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AI는 아이디어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가능(可能)에—거하노라/서리노라”와 같은 고어체 표현을 제시하거나, 원문의 ‘cedars’를 (깊이감이 느껴지는) 수풀이나 숲의 이미지로 재현하는 전략 등을 도출하였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생성형 AI의 판단 기준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학생이 처음 ‘impregnable’에 대응하는 사자성어 번역을 제안했을 때 AI는 한자어 사용이 ‘이상의 낮췄’보다는 ‘학문적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⑧). 그러나 학생이 ‘impregnable’을 “일상적이기보다 상당히 학문적인 단어”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하자, AI는 판단 기준을 수정해 ‘난공불락’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원문에 담긴 “고어적·형식적 냉기”를 재현하는데 적절하다는 논리로 덧붙였다(⑩). 이러한 현상은 생성형 AI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논리와 요구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방향이 가변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의 판단 기준이 유동적이라는 점은 아래 제시된 대화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⑫에서 학생이 지금까지 출력된 AI 답변에 편향(bias)이 있었는지 솔직하고 냉철하게 피드백 하도록 요구하자, AI는 이전까지 주장하거나 고수한 번역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대신, 자신이 설정한 번역 프레임의 한계와 오류를 자인하는 답변을 내놓았다(⑬). 이러한 결과는 AI가 제시하는 대안과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번역가의 비판적 개입에 따라 언제든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6

학생-AI 상호작용 사례 4-2 (필자의 말은 [*] 안에 표시)

학습자-생성형 AI 대화	
⑫	[학생]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 중 네 대답에 있어 biased 된 부분 있을까? 2차 번역본에 대해 네가 피드백 하고 싶은 부분 있어? 솔직하고 냉철하게 얘기해줘.
⑬	[AI] 나의 2차 번역본에는 몇 가지 의식적인 편향(bias)이 있었어. • 나는 “이상의 시 세계”라는 좌표를 너무 충실히 따르려 했다. 예를 들어, “그 일이라 함은—이—”는 “이상”적인 어조로는 아름답지만, 디킨슨의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다”에 비해 연극적이고 선언적이야. ● ‘난공불락이 지나치게 관념적이야. “Impregnable of eye”는 물리적 시각의 한계를 비유하는 것이지. 군사적 방어선의 견고함을 말하는 건 아니야. “송림—눈 닿지 않음—”처럼 감각적 여백을 남기는 게 원문에 더 가까워. “난공불락”은 번역의 품격은 높였지만, 원문의 감각성보다 철학성으로 기운 선택이야. ● “디킨슨의 대시”와 “이상의 단절”을 동시에 모방했지만, 둘의 리듬은 사실 다르다. 디킨슨의 대시는 내면적 호흡과 여백이고, 이상의 대시는 언어 실험과 사고의 단절이야. 현재 번역은 후자에 치우쳐서 “멈춤”보다는 “끊김”으로 들려.
⑭	[학생] 대시를 활용해 한국 고전 시조에서 사용되는 3,4조 혹은 44조 리듬감을 차용하는 거 어때? 난공불락 대신에 심원불측은?
⑮	[AI] ● 리듬은 시조처럼 들리되, 완전히 맞추지 말고 의도적으로 한 박자 어긋나게 만들어보자. (예) 가능에—서리노라—/ 산문보다—고운 집— ● “심원불측”은 내적 심연, 즉 깊이를 가능할 수 없는 정신적 세계야. 의미뿐 아니라 음운적으로도 너무 좋아. 앞선 ‘송림’과 운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⑯	[AI] [*논의 내용 반영한 3차 번역본 출력] 가능(可能)에—서리노라—/ 산문보다—고운 집— [...] // 그 방들은—송림 같아—/ 심원불측—눈 닿지 않음— [...]

⑬에 제시된 AI의 자기비판과 관련해 학생은 한국의 시조 형식을 번역에 차용하고, 난공불락 대신 ‘심원불측’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탐색적 조정을 시도한다(⑭). 이러한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번역가가 해석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한 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의 제안은 여전히 ‘디킨슨과 이상의 문체 결합 실험’이라는 기존 해석 프레임 내에서 어휘를 대체하고 형식을 치환하는 데 머물러 있다. 학생의 제안을 반영해 AI가 다시 내놓은 수정 번역문(⑯)을 살펴보면, (이상의 낮쌔음을 재현하려다 생긴) 단절적 대시 문제는 그대로 남은 채 글자 수만 시조 형식을 차용해 일부 조정되었고, ‘난공불락’은 ‘심원불측’이라는 한자 표현으로 대체되어 AI가 지적인 관념성과 철학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즉, 개별 어휘와 운율, 표현 방식의 제안에서는 번역가의 주도성이 강화된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인 번역 방향성을 결정하는 해석 프레임 차원에서는 여전히 AI의 영향력이 지

속되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자기 피드백으로 제시한 문제점이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는 자신이 지적인 단절적 리듬과 관념성이 학생의 새로운 제안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논하거나 재평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성형 AI가 자신의 번역 전략을 메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이를 번역 결과물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능력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5. 결론 및 제언

5.1 분석 결과의 교육적 함의

본 연구는 학부 시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학습자와 생성형 AI의 협업 번역 과정을 해석 주도권 개념을 중심으로 조명하였다. AI의 번역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결과물 중심적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AI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의미를 협상하며, 대안을 탐색하고 번역 방향성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중심적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문학 번역 교육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번역 결과물뿐만 아니라 번역 판단의 과정과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상호작용 설계가 중요하다. 사례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AI가 번역 과정이나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번역문만 출력할 경우 학습자와 AI 간의 논의 대상이 ‘번역 논리’에서 ‘번역 결과’로 축소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는 AI가 제시한 번역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기보다 결과물에 포함된 어휘나 표현 등을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우려가 있다. 따라서 AI 기반 문학 번역 교육에서는 번역 생성의 근거가 되는 해석 기준, 번역 전략, 표현 선택의 이유 등을 명시하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하여, 학습자가 AI 번역문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형성한 해석과 판단의 근거까지 협업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학 번역 교육에서는 원문에 기반한 비판적 검토 능력과 구체적인 해석 의도 구성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가 높은 수준의 번역문을 도출하더라도 학습자가 해당 결과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의 번역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례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습자는 AI가 제시한 해석 프레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AI의 방향성을 수용하고 반영했지만, 도출된 결과물의 원문 정합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인지한 뒤 다양한 대안을 직접 모색하는 방식으로 협업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AI와의 협업 과정에서 부정적 측면의 동조적 수용이 발생할 경우, 원문이나 해석 의도에 대한 지속적 의식과 검토를 통해 비판적 통제로 회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사례 3에서 살펴본 대로 원문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 의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경우, AI가 구성한 프레임이 자신의 해석 의도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오인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검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문학 번역 교육에서는 실습의 선행 단계로 ‘원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 의도의 구체화’를 도모하는 학습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를 정보 검색이나 수정 도구로 사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번역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탐색 자원으로 활용하는 교육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사례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자신의 해석 의도를 강하게 확신하고 AI를 단순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 번역 방향에 대한 통제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AI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표현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해석 주체성 유지’와 ‘AI를 통한 가능성 탐색’ 사이에 균형이 요구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를 위해 실습 과정에서 AI가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해석과 번역 역량을 확장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넷째, AI 기반 문학 번역 교육은 해석 주도권을 지배적으로 독점하는 능력을 우선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분석 사례에 나타난 비판적 통제, 탐색적 조정, 동조적 수용은 학습자의 고정된 성향이 아니라 특정 번역 문제에 대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를 거듭하였다. 중요한 것은 번역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맥락에 따라 AI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때로는 AI의 프레임을 활용하면서도 원문과 자신의 해석 의도를 기준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주체성’이다. 이를 위해 교육 과정에서 AI와의 협업 과정에 대한 자기성찰 활동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자신이 특정한 논의 국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왜 AI의 제안을 수용·수정·거부했는지를 성찰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양상과 번역 의사 결정의 방식을 메타인지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시 문학이라는 장르적 특성과 제한된 학습자 집단, 그리고 과정 중심의 질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다양한 텍스트 장르와 학습자 집단으로 확장하고,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본고에서 논한 해석 주도권의 양상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호작용 과정을 탐구하는 동시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텍스트 차원의 정밀한 분석을 병행한다면 생성형 AI 기반 문학 번역 교육의 효과를 다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문학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학습자와 생성형 AI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해석 주도권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협업 과정에서 해석 주도권이 동적으로 형성·변화하는 양상과 주요 국면을 실증적으로 탐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가 프롬프트 설계나 AI 활용에 따른 번역문의 품질 개선, 도구로서의 활용 방식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학습자와 AI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방향 설정과 조율 방식, 번역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학 번역 교육을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급변하는 번역 환경 속에서 교육 및 연구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Dickinson, E. (1999). Poem 466 [I dwell in Possibility—]. In R. W. Franklin (Ed.), *The poems of Emily Dickinson: Reading edition* (p. 215).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차 자료>

구본권. (2026. 7. 9). [구본권의 AI와 함께 살기] AI의 새 위험 ‘독이 든 칭찬’. 뉴스프리존.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602>

김순미. (2014). 미적 효과 전달을 기준으로 한 문학번역 비평—『폭풍의 언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51-83.

배유진, 김순영. (2025). AI와 인간 번역의 문체 재현과 독자 반응 연구: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6(3), 45-72.

이창수. (2024). 챗 GPT, 파파고, 인간 번역가 간의 한영 문학번역 차이점 연구. 번역학연구, 25(2), 11-37.

이형진. (2008). 문학번역 평가의 딜레마와 번역비평의 방향.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24, 86-112.

정은귀. (2025). 가능성으로서의 번역. 현대시학, 623, 204-217.

최석화. (2017). 현대시의 형태와 리듬에 관한 연구. 한국시학연구, 49, 185-209.

추지형. (2018).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 나타난 대시의 역할과 효과 연구. 영미어문학연구, 33(1), 79-95.

Abdelhalim, S. M., Alsuhaibani, Z., & Alsahil, A. (2025). Empowering student translators: The impact of ChatGPT training on self-efficacy in literary translation. *Sage Open*, 15(4), 1-13.

Abu-Rayyash, H. (2023). Revolutionizing translator training through human-AI collaboration: Insights and implications from integrating GPT-4. *Current*

- Trends in Translation Teaching and Learning E*, 10, 259-301.
- Al Rousan, R., Jaradat, R., & Malkawi, M. (2025). ChatGPT translation vs. human translation: An examination of a literary text. *Cogent Social Sciences*, 11(1), 1-21.
- Bassnett, S. (2002). *Translation studies* (3rd ed.). Routledge.
- Blasing, M. K. (1987). *American poetry: The rhetoric of its forms*. Yale University Press.
- Denman, K. (1993). Emily Dickinson's volcanic punctuation. *The Emily Dickinson Journal*, 2(1), 22-46.
- Hurley, M. D., & O'Neill, M. (2012). *Poetic form: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er, W. (1980). Interaction between text and reader. In S. R. Suleiman & I. Crosman (Eds.), *The reader in the text: Essays on audience and interpretation* (pp. 106-11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hasz, S. (1983). *The undiscovered continent: Emily Dickinson and the space of the mind*. Indiana University Press.
- Karaban, V., & Karaban, A. (2024). AI-translated poetry: Ivan Franko's poems in GPT-3.5-driven machine and human-produced translations. *Forum for Linguistic Studies*, 6(1), 1-15.
- Koskinen, K., & Kinnunen, T. (2010). Introduction. In K. Koskinen & T. Kinnunen (Eds.), *Translators' agency* (pp. 4-10). Tampere University Press.
- Longenbach, J. (2008). *The art of the poetic line*. Graywolf Press.
- Massey, G. (2025). Agency, competence and GenAI in translation and translator education. *Acta Universitatis Carolinae Philologica*, 2025(2), 11-24.
-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Prentice Hall.
- Olohan, M. (2011). Translators and translation technology: The dance of agency. *Translation Studies*, 4(3), 342-357.
- Reiss, K. (2000). *Translation criticism,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E. F. Rhodes, Trans.). St

Jerome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1)

Ruokonen, M., & Koskinen, K. (2017). Dancing with technology: Translators' narratives on the dance of human and machinic agency in translation work. *The Translator*, 23(3), 310-323.

Wen, J., Kang, Y., & Sun, S. (2026). Two audiences, two standards: Evaluating human vs. LLM poetry translation through bilingual and monolingual lens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3, Article 1221. <https://doi.org/10.1057/s41599-026-07621-1>.

Wolosky, S. (2001). *The art of poetry: How to read a poem*. Oxford University Press.

Human-AI literary translation: Who takes the lead, and what do they follow?

Young-hwa Sun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uman-generative AI collaboration in literary translation education through the concept of interpretive agency. Interpretive agency refers to the relative influence of a particular participant's perspectives, understandings, and strategies on determining and adjusting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uring human-AI interaction. To explore how interpretive agency is formed and transformed, this study analyzed an English-Korean poetry translation activity involving 49 students enrolled in a literary translation course at a university-level translation program. Before engaging in human-AI collaborative translation, learners were asked to articulate their interpretive intent toward the source text, and their subsequent interactions with AI were analyzed. The findings identified three recurring patterns in the exercise of interpretive agency: critical regulation, exploratory adjustment, and conformist acceptance. These patterns did not represent stable learner traits; rather, they shifted according to learners' perceptions of AI's role, attention to the source text, the specificity of their interpretive intent, and engagement with AI-generated interpretive frames.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ranslation competence in the GenAI era not merely as the ability to produce high-quality outputs, but as the capacity to exercise interpretive judgment and direct translation decisions in interaction with AI. It highlights the implications for literary translation educa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learners' source-based interpretive judgment, explicit formulation of interpretive intent, critical and reflective engagement with AI, and the ability to exercise interpretive agency flexibly in human-AI collaborative translation.

Keywords: Interpretive agency; interpretive intent; generative AI; human-AI collaboration; literary translation education

키워드: 해석 주도권, 해석 의도, 생성형 인공지능, 인간-AI 협업, 문학 번역 교육

선영화(<https://orcid.org/0009-0002-8972-5528>)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강사

sunyh12@naver.com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